


‘소크라테스 교체 기조’ KIA, 패트릭 위즈덤 품나

미국 복수 언론서 계약설 보도
3년 연속 20홈런 거포 내야수
KIA “메디컬 테스트 남은 상황”
라우어, 토론토와 마이너 계약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외인 타자 물색에 나선 것인 호랑이 군단이 메이저리그(MLB)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거포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의 영입에 임박했다.

미국 CBS 스포츠와 온 탭 스포츠 넷은 “위즈덤이 지난 14일 KBO 리그의 KIA 타이거즈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달 시카고 컵스로부터 방출된 그가 해외로 진출해 재기를 노린다”고 15일(한국 시간) 보도했다.

1991년생으로 우투우타인 위즈덤은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 오브 캘리포니아 재학 중이던 2012년 MLB 드래프트에서 전체 52순위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지명되며 성인 무대에 입성했다.

싱글A에서 시작해 더블A와 트리플A까지 마이너리그를 단계적으로 거친 그는 2018년 MLB 데뷔의 꿈을 이뤘고, 2019년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쳐 2020년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었다.

위즈덤은 MLB 통산 455경기에서 타율 0.209(1311타수 274안타)와 88홈런, 23도루, 207타점, 192득점, 출루율 0.291, 장타율 0.459를 기록했다. 특히



KIA타이거즈가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의 영입에 임박했다. 패트릭 위즈덤이 시카고 컵스 소속이던 지난 5월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맞대결에서 홈런을 터트리고 홈을 밟은 뒤 기뻐하고 있다. AP/뉴시스

2021년 28홈런, 2022년 25홈런, 2023년 23홈런을 때리며 세 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는 등 확실한 장타력을 과시했다.

올해 75경기에서 타율 0.171(158타수 27안타)과 8홈런, 5도루, 23타점, 16득점, 출루율 0.237, 장타율 0.392로 부진했던 그는 시즌 종료 직후인 지난달 지명 할당 후 방출됐다.

방출 직후 멕시코 태평양 리그 나란헤로스 데 에르모시요에 합류한 위즈덤은 8경기에서 타율 0.250(28타수 7안타)과 3홈런, 9타점, 4득점, 장타율 0.607, 출루

율 0.400을 기록하며 기량을 유지해왔다.

이 가운데 나란헤로스 데 에르모시요는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즈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해 등록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그는 한국의 한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현재 KBO 리그에 외국인 타자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팀은 KIA뿐이다. 삼성은 르윈 디아즈, LG는 오스틴 딘, KT는 멜 로하스 주니어, SSG는 길레르모 에레디아, 롯데는 빅터 레이에스, NC는 맷 데

이비스와 재계약했고 두산은 제이크 케이트, 한화는 에스테반 플로리얼, 키움은 야시엘 푸이그와 루벤 카디네스를 새로 영입했다.

3루수가 주포지션인 위즈덤은 1루수는 물론 좌익수와 우익수, 중견수까지 두루 소화할 수 있다. 만약 KIA 유니폼을 입는다면 3루수가 아닌 1루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KIA는 최근 두 시즌 동안 1루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황대인(389.1이닝)과 변우혁(358이닝), 최

원준(321이닝)이 수비에서 비슷한 비중을 가져갔다.

올해는 외야수에서 포지션을 변경한 이우성이 670.1이닝을 소화했고 변우혁(314이닝)과 서건창(276.2이닝)이 뒤를 받쳤다. 이우성이 무난한 활약을 펼쳤지만 전문 내야수가 아닌 만큼 어색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위즈덤이 1루를 책임진다면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로 내년 KIA의 내야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외야는 최원준과 나성범, 이창진, 이우성을 중심으로 김호령과 박정우, 고종욱 등이 뒤를 받칠 전망이다.


KIA 역시 영입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KIA 관계자는 “위즈덤과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메디컬 테스트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이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위즈덤의 영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된다. KIA는 소크라테스를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하는 등 재계약 여부를 두고 장고했으나 그의 슬로우 스타터 기질과 내야 안정화에 대한 고민이 외인 교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며 일찌감치 결별한 투수 에릭 라우어는 MLB에 재도전한다. 라우어는 지난 14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MLB 승격 시 220만달러를 보장하는 조건에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V12’ 호랑이 군단, 골든글러브서도 대잔치

김도영 280표... 올해 최고 득표율
최형우 최고령 수상·박찬호도 미소
‘우승 포수’ 김태군은 골든포토상

 열두 번째 우승을 이룬 KIA타이거즈가 올해 마지막 시상식에서 트로피 잔치를 벌이며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투수와 포수, 지명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등 8개 부문과 페어플레이상, 골든포토상 등의 주인공이 공개됐다.

김도영은 3루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그는 미디어 관계자 투표 288표 중 280표를 얻으며 송성문(키움·4표)과 최정(SSG·3표), 노시환(한화·1표)을 압도했고, 97.2%로 올해 수상자 중 최고 득표율의 주인공이 됐다.

또 김도영은 프로 3년 차에 첫 골든글러브를 거머쥐게 됐다. 그는 KBO 시상식을 시작으로 리얼글러브 어워드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동아스포츠대상, 조야제약 프로야구대상, 일구상 시상식에 이어 골든글러브 시상식까지 시상대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음을 입증했다.

박찬호도 유격수 부문에서 수상자가 됐다. 그는 288표 중 154표를 받아 박성환



(SSG·118표)을 제쳤다. 박찬호는 최대 격전지로 꼽혔음에도 53.5%로 과반 득표율을 이뤄냈다.

최형우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수상에 성공했다. 그는 288표 중 137표(득표율 47.6%)를 획득하며 강백호(KT·91표)와 김재환(두산·60표)을 따돌렸다. 특히 40세 11개월 27일의 나이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역대 최고령 주인공이 됐다.


골든글러브 후보에는 들지 못했지만 김태군은 골든포토상에 선정돼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스포츠사진기자회는 김태군이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은 직후 정해영에게 안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올해 최고의 장면으로 인정했다.

한편 김도영과 박찬호, 최형우를 비롯해 외야수 부문 구자욱(삼성)과 빅터 레이에스(롯데), 멜 로하스 주니어(KT), 1루수 부문 오스틴 딘(LG), 2루수 부문 김혜성(키움), 포수 부문 강민호(삼성), 투수 부문 카일 하트(NC)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페어플레이상은 원태인(삼성)에게 주어졌다.

한규빈 기자

페퍼저축은행, 첫 홈 연승·최다 승 타이에도 “갈 길 멀다”

지난 14일 GS칼텍스 3-0 완파
장소연 “기록은 생각지 않는다”

 ‘프로배구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창단 후 첫 홈 연승과 역대 최다 승리 타이 기록을 이뤄내며 사령탑 장소연 감독은 기쁨을 숨겼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 서울Kixx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2차전에서 3-0(25-18, 25-13, 25-16)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날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6일 GS칼텍스전에 이어 다시 한번 승전고를 울리며 창단 네 시즌 만에 처음으로 안방에서 연승을 챙겼다. 또 올 시즌 5승 9패(승점 15)를 기록하며 창단 후 최다인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5승을 14경기 만에 달성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서브와 블로킹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서브 득점에서 7-2로 앞섰고, 블로킹 득점에서는 8-0으로 GS칼텍스를 압도했다. 범실은 7-14로 상대의 절반밖에 범하지 않았고, 공격 성공률은 50.55%에 육박했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서브 공력이 잘 됐다. 특히 1세트 접전 상황에서 장위의 서브에이스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줬다”며 “시즌을 치러오면서 서브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장소연 감독이 지난 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 서울Kixx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2차전에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훈련을 통해 강조했는데 선수들이 잘 이행해 준 것 같다”고 총평했다.

이날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은 적재적소에 블로킹과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블로킹에서 하혜진이 3개, 박정아와 이원정이 2개, 테일러 프리카노가 1개를 책임졌고 서브에서는 장위가 2개, 테일러와 이한비, 박정아, 하혜진, 이원정이 1개씩을 성공시켰다.

장 감독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블로킹과 서브였다”며 “두 가지 모

두 잘 나와줬고 블로킹 같은 경우는 손모양이나 어떤 선수를 누가 어떻게 막을지도 판단이 잘 됐다”고 호평했다.

두 가지 기록에 대해서는 덤덤한 모습을 드러냈다. 당장의 작은 성과에 기뻐하기보다는 시즌을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장 감독은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다”며 “시즌은 길고 경기가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